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돌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필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3466/농협예금주 김현정. 016-547-8672



8월10일 위덕대 학생들과 일본 히로시마 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의 만남. 학생들에게도 일본 어르신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다. 사진제공=위덕대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보살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은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류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60년 고통' 청소·안마하며 공감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항. 국제 봉사활동의 원을 세운 22명의 위덕대 일본어학부 학생들이 낯선 땅에 도착했다. 학생들을 맞은 곳은 히로시마 '조선통신사 연수기관'. 조선시대 한일 외교의 한 장을 장식했던 곳이다. 학생들은 '민간 외교관'이 된 듯 어깨가 으쓱해진다.

올해가 우리에게 광복 60주년을 맞은 해지만 일본, 특히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는 60년 전 8월 9일이 끔찍한 기억으로 각인돼 있다. 이제는 건물도 복구됐고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지만 참혹한 기억은 아직 히로시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활동은 히로시마의 노인요양원에서 시작했다. 일본어 전공자들인데도 아직 낯선 땅에 적응도 되지 않은 탓인지 평소 같고 닳은 언어 실력이 썰매나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 보다는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들. 60년 전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여파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일본 할머니들이 먼저 말을 건넨다.

"학생들, 종이 거북이 집을 잘 알아야?" 할머니들과 조금 친해지자 학생들은 연습이라도 하고 온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집 청소, 골목청소에 할머니들의 어깨 안마, 말뼉 상대까지 학생들은 각자의 몫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할머니들은 손자뻘 되는 학생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만도 좋은 모양인지 싱글벙글이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줬다니, 고마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한다.

히로시마에는 사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 태어나 그대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하고 고국에 돌아갈 생각이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제일동포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한 학생은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고 나오는 길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는다. 노환에다 몸 여기저기가 불편한 할머니를 혼자 두고 나오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학생들의 활동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으로 이어졌다. 원폭 피해로 쓰러져간 망자들과 대면하는 자리. 학생들에게는 무거운 침묵

의 기운이 감돈다. 한 학생은 "전쟁으로 무고하게 숨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학생들의 기원은 참배에 이어 비석을 닦는 손길 하나하나에서도 묻어났다.

자원봉사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일본어를 전공하고는 있지만 과연 어떤 역사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은 학생이 있을 정도로 '인식의 차이'라는 두 나라의 양극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3학년 김현우(25) 학생은 "두 나라는 늘 평행선을 달러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학생들도 한결같이 "사람 사이의 정은 국경도 나이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이 역사의 벽을 넘어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아픔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하기에 히로시마 사람들과 굳게 잡은 두 손에서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이 민간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낀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활동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위덕대생, 日원폭 피해자 방문·자원봉사  
히로시마 평화공원 찾아 평화기원 참배

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학생들도 한결같이 "사람 사이의 정은 국경도 나이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이 역사의 벽을 넘어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아픔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하기에 히로시마 사람들과 굳게 잡은 두 손에서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이 민간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낀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활동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정진팀

"마음 쏘아야 시원합니다"

지역 장애 어르신들의 발을 꼭꼭 누르는 손길은 어르신들의 다리까지 이어진다. 손끝은 힘과 발마사지 기술로 조화를 이뤄 야무지다.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물놀이와 막바지 휴가로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하기 바빴던 8월 5일, 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김광환)은 피서행렬에서 살짝 비껴나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마사지 봉사회 정진팀(팀장 김용철)이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 안부가 궁금하고 우리 식구(정진팀)들도 보고 싶고... 길도 막히는데 여기 와서 발마사지 해드리는데 더 신나고 즐겁죠."

정진팀의 활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히 발만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무른다'는 것은 재운을 나눠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르신과 마사지 봉사자 사이의 친밀한 대화는 필수다.

"할아버지, 저번에 제가 따뜻한 물 드시라고 했는데 안 드셨죠?"

"에이, 미지근한 물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어서 못 먹겠는걸"

발마사지는 몸의 순환을 좋게 한다.

김강진 기자

따뜻한 물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만 어르신들에게 영 맛이 없다. 그럴 때마다 애가 타는 것은 봉사자들. 투정부러듯 이야기해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드시기 때문에 정진팀 봉사자들은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간다.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만 6년. 정진팀의 관록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서 엿보인다. 봉사자 스스로 아픈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 관리를 하는 모습도 그렇다.

6년이면 요령으로만 발 마사지를 해도 될 텐데 봉사자들은 "정성 없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 "손끝으로 하는 일이라 어르신들이 민감하셔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대번에 알아채시거든요."

여기에 더해 이권숙(45) 보살이 그간 봉사활동의 하면서 느낀 점을 조심스레 하나 전한다.

"'봉사'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받으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해요. 이것이 봉사자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김강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에서도 베테랑 봉사팀으로 불리는 '정진팀'. 8월5일의 무더운 날씨보다 정진팀의 봉사 열기가 더 뜨거웠다.

식료품·생필품 보내 주세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은 9월 한가위를 맞아 지역 장애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준비하느라 고심이다. 쌀과 같은 식료품은 늘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다. 정진팀은 "명절이면 복지관에

서 어르신들에게 치약 비누와 같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02)2092-1746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나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연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8월 1일부터 □ 입학일 : 9월 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찰,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 활인(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자형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2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제 9기수업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고두,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 2005년 9월 둘째주 화요일 (9월 6일) 제 9기 첫수업이 시작됩니다.